AI CAPEX 재차 확대 중인 대형 테크주들

Hana China Weekly | 2025.12.26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바이트댄스(비상장): 2026년 CAPEX 규모 추가 확대 예상

- 12/22 FT는 바이트댄스가 2025년 AI CAPEX를 210만달러에서 2026년 AI CAPEX를 230억달러(약 1,650억위안)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첨단 반도체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추정.

- 12/24 대만경제일보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업체의 AI 칩 구매 제한을 일부 해제한 이후, 중국의 3대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가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해당 기업들은 AI 칩 직접 구매 또는 관련 연산 인프라 임차를 통해 AI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2026년 관련 투자 규모는 총 1조 대만달러(약 2,280억위안)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SMIC(0981.HK): 일부 제품 가격 10% 인상 단행, 현재 풀가동 상태 추정

- 12/24 현지언론에 따르면 SMIC는 일부 생산능력에 대해 약 10% 수준의 가격 인상안을 이미 결정했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 이번 SMIC의 가격 인상 배경으로 원재료(실리콘 웨이퍼, 금, 구리 등)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트렌드포스는 SMIC와 화홍반도체의 가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풀가동 또는 풀가동을 초과하는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보도. SMIC의 2025년 연간 매출은 90억 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 규모를 기록할 전망.

배터리: ESS 수요 증가 기대감에 리튬 가격 강세 지속

- ESS 수요 증가 예상이 촉발한 리튬 배터리 수요 호조 기대감에 12월 중국 탄산리튬/육불화인산리튬/리튬인산철 가격이 4분기 누적 각각 +35%/+195%/+18% 상승. 육불화인산리튬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세 유지 전망에 전력설비 섹터 상승. 12/23 천재Tinci Materials(002709.SZ), 호남운능(301358.SZ), 윈난에너지(002812.SZ) 주가는 각각 9.4%/5.4%/5.3% 상승 마감.

- 한편, CATL의 장시성 이춘 리튬 광산이 2026년 춘절 전후(2월 중순) 생산을 재개할 예정. 이춘 광산은 핵심 채굴 허가 만료로 8월 10일부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초 재가동을 목표로 예비 준비에 착수한 상태.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기술 국산화 기대감에 강세

- 12/22 장위줘 국무원 SASAC 주임이 <인민일보>의 국유기업의 역할 및 미래 방향을 논하는 인터뷰에서 15차 5개년 기간 전략 기술 자립화 실현, 국가 차원에서의 기술 인재 확보, 중국의 공급망 완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반도체 자립화 기대감 강화. 12/22 SMIC(0981.HK), 화홍반도체(1347.HK) 각각 5.9%/5.2% 상승 마감.

SMIC(0981.HK): 풀가동 상태 유지, 가격 인상 단행

- 12/24 현지언론에 따르면 SMIC는 일부 생산능력에 대해 약 10% 수준의 가격 인상안을 이미 결정했으며, 조만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 이번 SMIC의 가격 인상 배경으로 원재료(실리콘 웨이퍼, 금, 구리 등)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AI 서버 및 가속기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반적인 반도체 제품 수요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
- 12/24 트렌드포스는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와 화홍반도체의 가동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풀가동 또는 풀가동을 초과하는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보도. SMIC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QoQ +2% 성장, 가동률 풀가동 유지, 매출총이익률은 18~20% 수준으로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 연간 매출은 9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규모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전망.

무어스레드(688795.SH): 엔비디아에 상응하는 GPU 공개

- 12/20 베이징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화산(Huashan)과 루산(Lushan)이라는 두 개의 신규 칩을 소개. CEO는 AI 학습과 추론을 위한 화산 칩은 엔비디아의 호퍼(Hopper) 시리즈보다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최신 블랙웰 라인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언급.
- 다만, 무어스레드는 화산 칩의 성능이 컴퓨팅 성능, 메모리 대역폭 및 용량 면에서 엔비디아의 H100 및 H200 칩을 포함한 호퍼 시리즈를 능가한다고 주장했지만, 칩의 구체적인 사양은 공개하지 않았음. 고성능 그래픽 처리에 초점을 맞춘 루산은 중국의 고급 게이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 두 칩 모두 내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윙테크(600745.SH): 반도체 공급 부족에 네덜란드에 해결 촉구

- 최근 일부 언론은 Nexperia의 중국 둥관(Dongguan) 공장에서 웨이퍼 재고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이와 관련해 지난주 윙테크와 Nexperia 네덜란드 본사 측은 첫 공식 협의를 진행하였음.
-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민간 용도의 반도체 수출에 대해 면제 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내부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

소비

중국중면(601888.SH): 하이난 성수기와 봉관 정책 수혜 기대감 증대

- 12/18 하이난 봉관(전역을 특별 세관관리구역으로 지정)으로 면세 품목 확대 등 지원책이 공식 발효되었음. 봉관 정책 시행 이후 무관세 적용 품목 수가 약 1,900개에서 약 6,600개로 확대되었고 전체 수입품 중 무관세 상품 비중은 약 21%에서 7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면세 소비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4Q25 하이난 성수기 및 정책 완화의 효과가 기대되며 12/19 중국중면 주가는 8.3% 상승 마감.

징동닷컴(9618.HK): 파리 물류 창고 도난으로 손실 피해

- 12/23 파리 북부 센생드니 지역에 위치한 징동 물류창고가 12/22 새벽 도난 사건을 겪은 이후 현재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힘. 징동 측은 현지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약 3.1억위안 규모의 대규모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 현지 언론은 범인들이 현장 CCTV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침입 당시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도난 품목은 주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3C 기기와 오디오 헤드셋 등으로 확인.

화웨이(비상장): 폴더블폰 Pura X 가격 인하

- 삼성전자와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스마트폰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20 화웨이는 와이드스크린 플립형 폴더블폰 Pura X의 가격 인하를 결정. 올해 3월 출시한 Pura X의 가격을 최대 800위안 인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세로로 접히는 이 모델의 시작 가격은 6,899위안으로 하향 조정.

플랫폼/테크

바이트댄스(비상장): 2026년 AI CAPEX 추가 확대 예정

- 12/22 FT는 바이트댄스가 2025년 AI CAPEX를 210만달러에서 2026년 AI CAPEX를 230억달러(약 1,650억위안)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첨단 반도체 확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추정.
- 한편, 바이트댄스는 직원 유지를 위해 연봉과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음. 미국 사업의 향후 방향을 정리해 가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 12/19 전 직원에게 배포한 내부 서한에서,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연봉의 상·하한선을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힘. 바이트댄스는 전체 보너스 풀 규모를 전년 대비 35% 확대하고, 보상 조정에 투입되는 비용은 1.5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 12/24 대만경제일보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업체의 AI 칩 구매 제한을 일부 해제한 이후, 중국의 3대 클라우드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가 AI 투자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해당 기업들은 AI 칩 직접 구매 또는 관련 연산 자원 임차를 통해 AI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2026년 관련 투자 규모는 총 1조 대만달러(약 2,280억위안)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콰이쇼우(1024.HK): 해킹으로 주가 약세

- 12/22 콰이쇼우가 해킹으로 인해 플랫폼 내에서 외설적 콘텐츠가 갑자기 대량 확산됐다는 보도가 전해진 이후 투심 위축. 콰이쇼우는 해당 사고를 인정하며 경보 계획을 가동하였으며 스트리밍 기능은 점진적으로 정상 복구 중이라고 밝힘. 12/23 콰이쇼우 주가는 3.5% 하락 마감.

AI: IPO 대어 Zhipu AI와 MiniMax 상장 임박

- Zhipu AI와 MiniMax 등 AI 기업은 중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역외 지분 발행 허가를 획득. 각각 4,303억/3,358만주의 H주 신규 발행 계획. 12월 21일 General AI 기업 MiniMax는 홍콩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한 이후의 수정본 투자설명서를 처음으로 했으며 MiniMax는 설립 이후 IPO까지 걸린 기간이 가장 짧은 AI 기업이라는 기록을 새로 쓸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애지봇(비상장): 임베디드 AI 시장의 폭발적 성장 예고

- 12/22 애지봇은 전문 로봇 AI 플랫폼 'Qingtianzu'을 공식 출범. 당타이화 이사장은 2025년 연간 매출과 로봇 출하량이 각각 10억위안/5,000대를 달성할 것이며 2026년에는 YoY 몇 배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예고. 또한 임베디드 AI의 시장 규모가 장차 휴대폰 보급 대수를 넘어설 수 있으며, 여기에 대당 가격을 곱하면 향후 산업재 분야에서 가장 큰 단일 제품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

알리바바(9988.HK): Doubao폰 유사 AI 하드웨어 개발 착수

- 12/19 알리바바 산하 오피스 플랫폼 '딩딩(DingDing)'을 통해 'Project D'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oubao AI 폰과 유사한 AI 하드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유니트리(비상장): G1 고난도 퍼포먼스 시연, 제어 기술 특허 취득

- 12/18 휴머노이드 로봇 G1이 청두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에서 동시에 앞공중제비(front flip)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큰 관심을 받음. 총 6대의 G1 로봇은 가도수 Wang Leehom의 공연에서 백댄서로 등장해 고난도의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 장면은 빠르게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음.
- 12/23 유니트리는 확산 전략 기반 로봇 상호작용 제어 기술 특허를 취득. 이 특허는 로봇이 미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을 예측 및 제어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존 제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해 로봇 제어 정확도, 신뢰도 및 응답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비테크(9880.HK): 휴머노이드 로봇 수주 성공, 성장 모멘텀 지속

- 12/19 유비테크가 가사 도우미 플랫폼 TianEDaojia와 MOU 체결,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임박 기대감이 형성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강세. 12/19 유비테크 주가는 4.7% 상승 마감.
- 12/22 유비테크는 광둥성 화이저우시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수집 및 테스트 센터 프로젝트로부터 5,962만위안의 'Walker S2' 수주를 성공하였으며 25년 YTD 누적 수주액 14억위안을 기록.

중과서광(603019.SH): 고성능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출시

- 12/18 엔비디아와 화웨이의 고성능 플랫폼에 맞설 수 있는 첨단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공개. 쿤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스케일엑스(scaleX)선보였으며 해당 플랫폼은 중국 최초의 1만 장 규모 AI 슈퍼클러스터이며, 총 연산 성능이 5엑사플롭스(eflops)를 초과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힘. 스케일엑스 1만 장 슈퍼클러스터는 조 단위 파라미터 모델, 과학 연구용 AI 등 복잡한 시나리오를 위해 설계된 대규모 연산 인프라이며, 이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 R&D 분야에서 중과서광이 축적해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라 설명.

자율주행

자율주행: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자율주행 전용 번호판 발급

- 12/20 베이징시는 중국 최초로 L3급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전용 번호판을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3대에 발급. 현재 조건부 자율주행 기능은 징타이 고속, 공항북선 고속, 다싱공항 고속 구간에서만 허용되며 발급 대상은 장안자동차 모델로 아크폭스 차량에도 곧 발급될 예정.
- 이는 자율주행이 시범 단계를 넘어 양산 및 제도권 진입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이정표적 사건으로 평가됨. 중국은 본격적인 L3 자율주행 시대를 개막했다고 강조하였으며 3개의 허용 구간 외 도로나 지역에서는 L3 기능을 강제 종료하도록 설계돼, 안전과 책임 경계에 대한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설명.

허사이테크(HSAI.US): 메이퇀에 드론용 라이다 공급, 신규 시장 공략

- 12/19 허사이테크는 메이퇀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고, 허사이테크의 2세대 순수 고체형 위치 결정 라이다인 FTX를 메이퇀 드론에 공급하기로 확정. 중국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 메이퇀의 드론에 라이다를 공급하기로 하며, 자동차용 라이다를 넘어서는 신규 시장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다고 평가받음.

샤오미(1810.HK): 중국 군사 기업 의혹 전면 부인

- 12/23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샤오미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중국 군사 기관과도 어떤 관련도 없으며 항상 소비자 제품 기업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힘. 이어 샤오미는 민간 및 상업용으로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1260H 목록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고 강조. 1260H 목록은 즉각적인 제재를 수반하는 무역 블랙리스트와 달리, 국방부가 중국 군과 연계됐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지정해 미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 거래 위험을 경고하는 성격의 명단으로 딥시크와 유니트리 등도 포함되어 있음.
- 12/19 샤오미 EV는 베이징시 L3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 라이선스를 취득했으며, 베이징시 스마트 커넥티드카 고속도로 내 조건부 자율주행 테스트를 개시.

로보택시: 중국 시장 규모 1만대 시대 초입

- 12/21 구글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Waymo가 다수의 교차로에서 차량이 일제히 정차하는 현상으로 주목을 받으며 중국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다시 집중되었음. 현재 공개된 2026년 목표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때 2026년 중국 로보택시 업체 포니.AI, 위라이드, 디디의 로보택시 차량 규모는 합산 약 8,000대에 이를 전망. 중국 로보택시 시장 규모는 1만 대라는 마일스톤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음.
- 2026년은 로보택시 대규모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각 사의 기술 안정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함. 사람과 기계의 공동 주행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핵심 관문인 L3급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로보택시 산업 확산의 긴박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

전기차/이차전지

BYD(1211.HK): 유럽 공략 전략 실효성 가시화

- BYD는 11월에도 유럽 시장에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간 반면, 테슬라는 판매 감소 흐름을 지속. 11월 유럽 내 신차 등록 대수는 BYD는 21,133대 (YoY +221.8%, MoM +21.0%), 테슬라는 22,801대 (YoY -11.8%, MoM +227.4%)를 기록. 이는 BYD가 유럽 시장에서 공격적인 라인업 확대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
- 12/19 중국 현제 매체는 BYD가 연구개발 인력 급여를 인상했다고 보도. BYD 직원 다수는 월급이 500~1,000위안 인상됐고, 일부 직원은 2,000~3,000위안의 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함.

지리자동차(0175.HK): 지커와의 합병으로 효율성 제고, EV 모델 흥행 가속

-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는 12/22 지리자동차와의 합병을 완료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음. 지리자동차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으며 이번 합병을 통해 전략 실행 효율성, 혁신 역량,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고, 통합 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힘.
- 지리자동차의 인기 전기차 모델 싱위안(Xingyuan) EV가 출시 14개월 만에 누적 50만 대 인도 돌파라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 이 모델은 최근 6개월 연속 월 판매 4만 대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 내 베스트셀러 전기차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

배터리: ESS 호조가 주도하는 소재 가격 상승

- 배터리: ESS 수요 증가 예상이 촉발한 리튬 배터리 수요 호조 기대감에 12월 중국 탄산리튬/육불화인산리튬/리튬인산철 가격이 4분기 누적 각각 +35%/+195%/+18% 상승. 육불화인산리튬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세 유지 전망에 전력설비 섹터 상승. 12/23 톈츠 재료(002709.SZ), 호남운능(301358.SZ), 윈난에너지(002812.SZ) 주가는 각각 9.4%/5.4%/5.3% 상승 마감.

Eve energy(300014.SZ): 배터리에서 로봇으로 사업 확장, 차세대 성장 동력 모색

- 12/22 투자액 규모가 약 10억위안에 달하는 화이저우 신규 나트륨 배터리 생산공장 공식적으로 착공. 이외 5만평의 로봇 및 AI 센터도 동시 건설 예정. 이곳에서는 연구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커버하며 내년에 로봇 생산과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Eve energy가 선도적으로 이차전지뿐 아니라 자체 로봇 개발과 통합 시스템 제공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배터리 업체들의 로봇 진출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특히 사람처럼 움직이는 임베디드 AI로봇이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CATL, BYD 등 다른 배터리, 제조 기업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로봇 개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

CATL(300750.SZ): 이춘 광산 재개, 리튬 가격 안정화 기대

- 중국 리튬 시장 전문 매체는 Mysteel CATL이 운영하는 중국 장시성 이춘 리튬 광산이 2026년 춘절 전후(2월 중순)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함. 이춘 광산은 핵심 채굴 허가 만료로 8월 10일부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초 재가동을 목표로 예비 준비에 착수해 있다고 전한 바 있음. 가동 중단은 탄산리튬 가격은 급등하였으며 배터리 재조 원가 부담을 촉발하였음. 향후 이춘 광산의 재가동은 배터리 소재 안정화의 의미있는 완충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4E	2025E	2024E	2025E			
텐센트(0700.HK)	(1.8)	19.4	21.0	13.8	10.7	14.9	13.9	40.2	0.0	2026-03-18
알리바바(BABA.US)	0.2	24.4	10.3	4.3	10.6	(12.4)	21.9	(35.7)	(1.4)	2026-02-20
징동(JD.US)	1.2	10.9	10.1	13.8	6.3	(42.6)	27.1	(38.8)	(0.7)	2026-03-06
트립닷컴(9961.HK)	0.6	11.1	19.0	16.1	13.9	86.4	(40.3)	86.2	(0.2)	2026-02-24
텐센트뮤직(TME.US)	(1.0)	19.4	14.1	15.1	12.7	66.2	(10.4)	46.0	0.0	2026-03-18
콰이쇼우(1024.HK)	(2.6)	12.3	25.0	12.0	9.4	17.9	16.0	45.6	0.0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2.3)	11.8	17.4	8.2	5.5	12.8	9.9	13.2	0.0	2026-03-27
샤오미(1810.HK)	(3.3)	21.5	18.7	28.6	19.9	83.5	4.3	79.5	0.0	2026-03-18
레노버(0992.HK)	0.4	9.5	24.7	13.5	7.9	14.6	10.8	7.4	0.0	2026-02-16
팝마트(9992.HK)	3.8	19.4	71.5	185.4	35.1	296.3	36.7	290.7	(0.2)	2026-03-26
미니소(MNSO.US)	(0.8)	16.8	21.9	25.0	19.4	(17.3)	45.8	287.7	0.0	2026-03-20
BYD(1211.HK)	(0.1)	21.3	16.5	8.5	16.2	(10.4)	37.4	(14.8)	(0.0)	2026-03-24
샤오펑(9868.HK)	(0.7)	-	(4.4)	93.6	43.2	적지	흑자	적지	0.0	2026-03-18
CATL(300750.CH)	(0.3)	24.4	23.4	16.4	24.6	36.0	25.6	36.1	0.0	2026-03-16
양광전력(300274.CH)	2.3	23.5	31.9	23.2	18.5	35.9	16.8	37.4	0.0	2026-04-27
북방화창(002371.CH)	5.5	47.7	19.7	31.2	26.8	26.3	34.5	26.5	0.0	2026-04-27
SMIC(0981.HK)	9.2	106.3	3.3	15.5	20.5	43.4	47.0	65.4	0.0	2026-02-11
해광정보(688041.CH)	8.0	163.9	13.9	57.1	50.8	72.7	56.5	62.3	0.6	2026-03-02
통푸마이크로(002156.CH)	5.2	47.1	7.8	14.5	14.2	78.0	28.3	88.9	0.0	2026-04-13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14.4	38.5	20.4	49.7	65.8	49.1	74.4	44.6	0.0	2026-04-29
중지쉬창(300308.CH)	11.9	67.2	40.8	57.5	93.4	107.7	97.7	103.7	0.0	2026-04-20
포니AI(PONY.US)	(1.6)	-	(22.2)	15.4	35.2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3-25
위라이드(WRD.US)	(1.0)	-	(21.2)	78.0	116.5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5.1)	51.7	7.1	51.4	44.6	흑자	56.7	흑자	0.0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4.1)	-	(46.6)	50.8	67.8	적자	적지	적자	0.0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0.3)	74.5	15.0	16.9	18.7	14.4	21.0	17.0	0.0	2026-03-19
중신증권(6030.HK)	(1.2)	12.9	9.7	(14.5)	7.9	30.3	10.7	38.4	0.0	2026-03-26
평균	1.4	37.2	13.7	33.4	30.2	45.6	27.9	60.3	(0.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2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 송예지)는 2025년 12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